

상처와 험담보단 용기와 이해를



나는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의 흉을 보지 않겠어요

I will not talk badly about my friends behind their back.

황희 정승이 젊을 때, 길을 가다가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황희 정승이 물었습니다.
 “두 마리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하나요?”
 농부는 밭 갈기를 멈추더니 황희에게로 와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앞에 있는 소가 조금 낫습니다.”
 황희는 비밀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귀에 대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황희는 농부의 훌륭한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디에서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학자인 주희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엿듣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험담은 하지도 말고 맞장구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 * 사람들은 왜 남의 험담을 할까요?
- * 여러분이 험담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 * 험담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 대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겠어요

I will cheer my friends on instead of saying something hurtful.

「라이언킹」은 프라이드랜드의 왕자인 사자 심바가 삼촌의 계략에 빠져 방황하다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왕위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심바는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멀리 떨어진 사막에 쓰러집니다. 멧돼지 풀바, 미어캣 티몬이 심바를 발견하고 셋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죽게 한 게 자기인 줄 알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심바, 그런 심바에게 친구들은 늘 격려를 해줍니다.
 “옛날 일은 잊어버려.”
 “문제없어. 다 잘 될 거야.”
 심바는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자 친구인 날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개코원숭이 라피키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니다. 마침내 심바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대단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남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대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
 * 나에게 힘이 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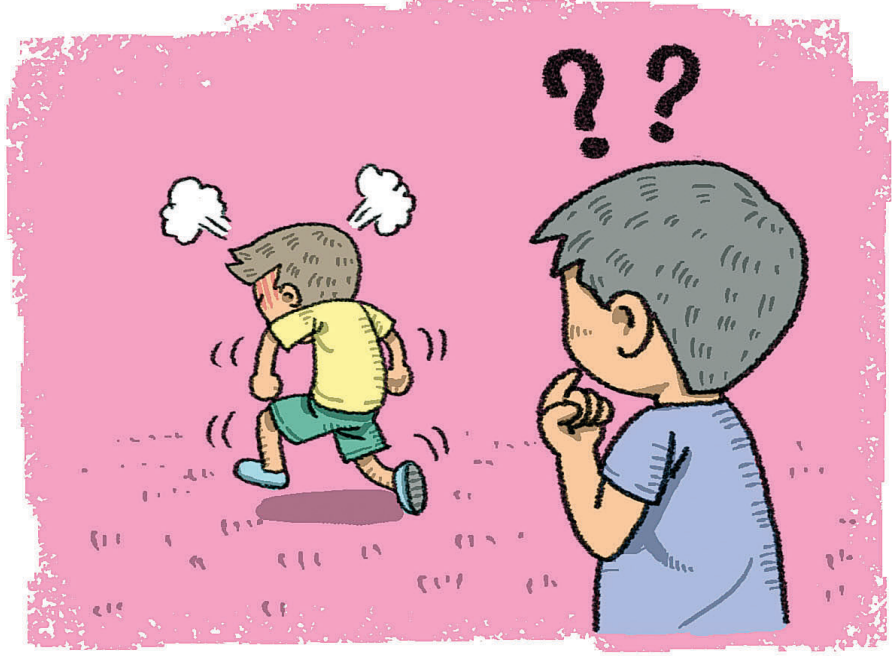


친구가 섭섭하게 대해서도 화내지 않고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Even when my friends make me feel sad, I will think about why they behaved that way before getting upset.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타고르(Tagore, 1861~1941년)는 인도의 시인입니다. 타고르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하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되어도 하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타고르는 뒤늦게 나타난 하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은 묵묵히 일을 마치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제 딸아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타고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의 어려운 사정도 모르고 인정머리 없이 굴었으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타고르가 화를 내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한마디만 물었다면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성실하던 사람이 무슨 일로 늦는 걸까?’ 하고 걱정을 했다면 더 친절하게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타고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벌떡 화부터 냅니다. 친구가

섭섭하게 굴면 이유를 따져봐 생각도 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한자성어에 ‘역지사지易地處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이유를 물어보세요. 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좋은 친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 타고르의 경우처럼 이유도 묻지 않고 벌떡 화를 냈던 적이 있나요?
 *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시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락약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게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있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렇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송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 것이다.

교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탱화 청동불상 전문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